

한진P&C, 통기성 필름 “2세 경영”

1월2일 이수영 부사장을 대표이사로 ... 이종소 전임대표는 부회장에

한진P&C가 1월2일 이종소 전임 대표이사의 아들 이수영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하며 본격적인 2세 경영 체제로 진입했다.

이수영 신임 대표이사는 1962년 생으로 경희대학교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1989년부터 한진P&C에서 근무를 시작해 상무이사과 부사장을 거치며 경영수업을 받았다.



이수영 대표이사

한진P&C는 국내 통기성필름 시장에서 점유율 36.22%로 업계 1위를 고수하고 있는 중견 우량기업으로 현재 유한킴벌리 대한필프, 동서식품, 오투기 등 대형 기업들과 장기 공급계약을 맺어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갖추고 있다.

생산설비는 다층필름 1개 라인, 통기성필름 7개 라인, 합지 6개 라인을 갖춘 국내 최대 통기성필름 생산기업이다.

매출 비중은 통기성필름이 286억9700만원으로 51.4%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류포장 부문이 200억5700만원으로 35.9%, 상업용인쇄가 43억5400만원으로 7.9% 스트랫치필름 27억400만원으로 4.8%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1996년 이전까지는 비통기성필름을 이용한 제품들이 대부분이었으나 피부 손상을 불러일으키는 부작용이 문제가 돼 이후 빠른 속도로 통기성필름 제품으로 대체되고 있어 시장규모가 나날이 확산되는 추세이다.

통기성필름은 증기나 기체는 통과하나 액체는 통과할 수 없는 구조로 필름에 미세한 기공이 다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통기성이 생겨 일회용 야기 기저귀의 겉 커버, 여성용 생리대의 겉 커버, 일회용 방어 작업복의 원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통기성필름은 원재료 필름에 탄산칼슘을 분산시키는 공법으로 생산하는데, 일반적으로 원재료 필름으로 PP(Polypropylene)나 PE(Polyethylene) 필름을 사용하며 PE필름에 부식포를 합지하는 과정을 거치면 기저귀나 생리대에 사용되는 방수막이 생산되게 된다.

한편, 한진P&C는 이종소 전임 대표이사를 부회장으로 선임하고, 박호석 부장을 이사로 승진 발령했다. <한기석 기자>

<Chemical Journal 2003/01/06>